

'2025 완도 방문의 해'...관광·지역 경제 활성화 '톡톡'

1-6월 관광객 수 전년비 6.2% 증가
청산도 축제 등 방문객 역대 최고치
완도 치유 페이...지역 소비로 연결



지난 5월 개최한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에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완도 방문의 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 이후 전례 없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가 뚜렷하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완도군·한국관광공사 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완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7만7천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만6천명이 증가(6.2%)했다.

특히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5월3-6일 열린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 총 11만2천명이 넘게 다녀갔으며, 5월 한 달간 관광객 수만 7만8천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청산도, 장보고 유적지, 완도해양치유

센터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전년도 대비 평균 40% 이상의 방문객이 증가했다.

관광객 유입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

어넣은 핵심 동력은 '완도 치유 페이' 정책이다.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완도 치유 페이'는 관광객에게 숙박·음식·특산품 소비 혜택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큰 몫을 했다.

6월 말 기준 '완도 치유 페이' 참여 팀은 총 9천

30팀에 달하며, 이들의 소비 금액은 총 33억원, 이 중 25억8천만원 이상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 치유 페이'로 결제한 금액만 7억원에 이르며, 소비 항목을 살펴보면 ▲식당 39% ▲특산품 34% ▲숙박 24% ▲카페 3% 순이었다.

특산품과 숙박 소비는 비수기였던 3-4월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완도군이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스타, 여객선 반값 지원, 유료 관광지 할인 등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5월16-20일 완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다수가 '방문의 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재방문의 의사 역시 높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 자연과 해양치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치유 관광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김산 무안군수, 기재부·국회 방문 국비 확보 '총력'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12건 건의

김산 무안군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 행정에 나섰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김산 군수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군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건의된 사업은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00억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80억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원) ▲툼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22억원) 등 12건이다.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단계 대응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안=김상호기자

영광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급

건당 5만원...사회안전망 강화

영광군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 누

구나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위기가구'를 읍·면사무소에 신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 자격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위기가구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단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존 복지급여수급 가구 신고자,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 내지는 취지"라며 "이번 포상제도를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해남 햇고구마 '진올미' 본격 수확

해남군이 조기재배 햇고구마인 '진올미' 수확에 본격 나섰다. <사진>

3일 해남군에 따르면 부드러운 식감과 뛰어난 당도를 자랑하는 '진올미'는 국내에서 개발된 밤고구마 품종이다.

일반 품종보다 약 2개월 빠른 시기에 조기 수확이 가능해 여름철 프리미엄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전략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조기재배 농가와 협력해 7월 말부터 수확과 유통에 들어갔다. 초기 정식 시점의 안정된 기상 조건과 적절한 강우·일조량 덕분에 전년 대비 수확량 증가가 기대된다.

해남고구마는 지난 2006년 지리표적소재 제42호로 등록돼 전국에서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직영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통해 햇고구마를 포함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햇고구마 시세는 10kg 한 박스 기준 약 3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고구마를 활용한 빵, 말랭이, 칩, 스프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도 상품화되고 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내 육성 품종의 장점을 살려 조기재배 기술을 확대하고

병해충 대응력을 높여 해남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며 "유통 채널 다각화와 가공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농가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환영"

RE100·에너지국가산단 구축 '박차' 핵융합 인프라 육성·'K-그리드' 거점

나주시가 대통령령의 'K-그리드 혁신기지 전남 구축' 발표를 환영하며 전남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 도약에 나섰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K-그리드는 RE100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AI,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전력 기술이 융합되는 혁신 산업이다.

윤병태(사진) 나주시장은 "이번 구상은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맞물려 전남권을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의 첨단 전력망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 비전이 제시된 것"이라며 "이는 나주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에너지 중심도시' 전략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에너지국가산단과 노안일반산단을 RE100 클러스터 산단으로 조성해 이재명 정



부의 RE100 정책과 발맞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는 세계 최초 직류(DC) 산업 특화 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직류 실증 인프라 구축,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센터 운영, 디지털 기반 전력기자재 산업화 등 직류 전 주기 생태계를 완비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무한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차세대 그리드 센터, 초전도 시험설비 등 인프라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시장은 "나주는 직류 송배전과 차세대 전력망, 핵융합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 도시이자 K-그리드 혁신기지의 심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영암 한우, 남도장터서 30%할인 이벤트

축산농가 살리기...1인 최대 25만원 혜택

영암군은 3일 "오는 14일까지 지역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영암 한우농가(기) 살리기 기획전'을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영암몰과 남도장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영암 한우를 경제적 가격에 제공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우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도장터에 선보일 영암 한우는 영암축협

하나로마트와 삼호명품관에서 내놓은 20종이다.

영암축협하나로마트는 1++등급 프리미엄 구입용 선물세트 900g, 1++등급 치마-업진-부채-갈비-살치 각 300g 등 17개 상품을 내놓았다.

삼호명품관은 1++등급 매실떡인 한우 채끝살 300g 등 3개 상품을 출시했다. 행사 기간 남도장터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화면에서 영암 한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5개의 3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할인액은 25만원까지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결정 환영"

환경 유해시설 설치 엄정 대응

목포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 반려를 환영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목포시는 "이번 반려는 사업계획에 중대한 문제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목포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특히 목포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부적절' 의견을 공식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반려 결정은 목포시 입장의 정당성을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목포시는 향후 사업자가 유사한 계획을 재차 제출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한 환경 유해시설에 엄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시민과 함께 지켜낸 결과"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의당 전남도당과 목포시의회 역시 이번 반려 결정을 환영했다. /목포=정해선기자